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有限会社 三 愛

取締役社長 張 鐘 善
 (名古屋教会長老)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 E L (0593) 31-4771(代)

三 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 E L (0564) 31-8893(代)

金聖河名誉長老(教会)逝去

教会葬으로서 엄숙히 거행



故 金聖河 名誉長老

金聖河名誉長老와 七月二十三日(土)午後二時 腦溢血로 逝去하였다. 享年八十九歲.

故金聖河名誉長老의 葬禮 前夜追悼禮拜가 七月二十四日(日)午後七時三十分, 川崎教会에서 엄숙히 舉行되었다. 告別式은 二十五日(月)午前十時, 李仁夏牧師의 司會아래 關東地方會 教会의 牧師、長老、信徒、川崎・青丘社關係者、川崎市等에서 많은 弔客이 出席한 가운데 一八八〇年 名誉長老로 推戴받아 逝去하신 前主日가 行하였다.

主日禮拜에 꾸준히 出席하셨다. 故金聖河名誉長老는 四十餘年間 曠 한 자리를 지키셨으며, 長老님이었던 故金聖河名誉長老에 있어서는 川崎教会에 있어서는 반석과 같은 存在였다. 슬하에 六男妹를 두셨는데 二男(金榮植、金君植)와 二女(金鴻植、金明植)를 세운 總會的으로 道 業을 이셨다. 故金聖河名誉長老는 解放後, 石川縣朝鮮人連盟委員長을 歴任. 一九五〇年度에 民団石川縣本部部長을 하였고 川崎教会가 地域社会의 問題를 教会의 課題로 다루기위해 하는 社会福祉 青丘社의 初代理事長을 지내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地域社会福祉를 위한 功勞를 인정받아 川崎市長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權富仁長老(船橋)逝去

教会禮拜堂에서 엄숙히 告別式舉行
教会・民団等 同胞社会에 功績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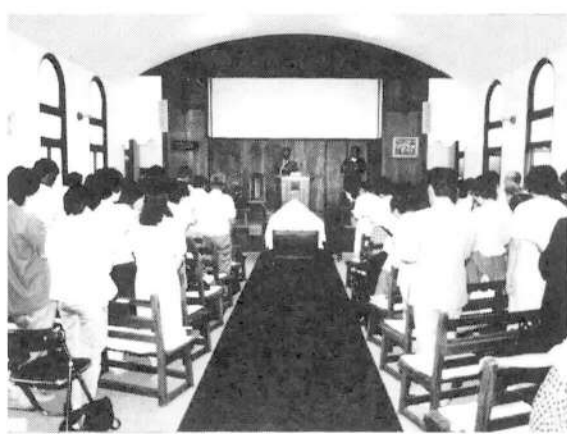


故 權富仁 長老

지난八月二十一日十一時二十分 船橋教会의 重鎮으로 教会創設時부터 主의 敎會를 忠誠으로 섬긴 權富仁長老는 肝不全으로 逝去했다. 享年六十八歲.

故權富仁長老의 告別式과 前夜式은 臨時堂會長 李仁夏牧師와 七月에 赴任한 申鉉錫牧師가 司會와 說敎을 交替하면서 進行, 關東地方會 敎役者, 信徒, 民

團關係者들의 弔客 三百名이 參席한 가운데 엄숙히 行하였다. 故權富仁長老는 一九三六年, 當時 日帝의 報國隊員으로 징용되어 渡日, 北海道炭鉱에서의 重労働으로 시작하여 九州, 東京, 立川, 船橋로 居處를 옮기면서 在日同胞가 겪은 苦難의 길을 걸어왔다. 解放後 不動產業으로 成功하여 株式會社들을 이루었다. 일찍이 크리스찬 회에서 자라 洗禮받고 一九五〇年初 船橋에서 開拓傳道가 시작되자 執事職을 맡고 一九七四年長老로 被擢되었다. 故權富仁長老는 七年前 肝硬化症으로 삶의 危機를 겪고 船橋教会 禮拜堂 新築을 第一優先으로 當時 李大京牧師와 協力, 오늘의 敎會堂을 三年前에 竣工하였다. 敎會堂을 建築하고나서 昨년에 自宅를 新築하였음은 一世의 信仰을 第一으로 삼는 삶의 面目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YMCA 理事, 東京聖書神學校 理事, 民団千葉本部議長, 千葉商銀理事等의 公職을 歴任하여 敎界와 同胞社会에 큰 貢獻을 남겼다. 遺族은 朴順貞女史와 醫師인 長男 丙浩先生을 비



敎團・岡山県西部地区教会と水島教会との 交流会

水島教会が岡山西部地区 諸教会と第二回合同禮拜

岡山県西部地区諸教会と水島教会との第二回合同禮拜가 七月三日, 玉島教会で開かれた. 參加者ハ六十六名, 水島教会からは七名가 參加했다. 兩教会의 合同禮拜聖餐式의 後, 獨唱あり, デュエットあり, 合唱あり의 楽しい愛餐會がある等, 深い交わりをもつた. 敎團岡山西部地区との交流ハ, 八月七日, 玉島教会と岡山教会との講壇交換, 十一月十三日鴨方教会と水島教会との講壇交換, 八月九日(月)五・二十二日, 韓日禮拜交流等, 年間活動計劃のもとに積極的に進められている.

福音을 섬기는 길

고린도前書 9:19~23

金 武 士 牧師 (大阪西成教会)

說 教



독일의 神學者인 디트리히·본히퍼는 그著書「信徒의 共同生活」속에서 그리스도敎徒가 해야하는 奉仕에 대해서 興味있는 말을 하고 있다. 「사람에 있어서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선의의 첫 번째는 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서 그를 사랑하게 되니 다. 그처럼 우리가 형제와 말의 귀를 기울여 주는 성을 얻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지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는 습성을 얻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 그 형제에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해 준다는 것은 옳을 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촉하신 들어주는 것의 본사, 다시 말하면 형제의 고백을 들어주는 것의 본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나는 자유인이어서 아무의 종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지 만, 이것은 20절에도 21절에도 22절에도 나오는 말 씀이다. 이것은 사람을 그리스도안에 있는 구원에 인도하는 것과, 그것을 始初로써 보다 풍부한 聖化(聖化)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20절 「유대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유대 사람 노릇 했을 것이다. 그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은 율법에 매여 살지 않으면서도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먹고 있었던 바울. 그 러한 바울을 완전히 「一八〇」 바울은 물론 유대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유대 사람이었던 것을 초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을 행하였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굳이 割禮를 받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割禮를 받게 한 것은 바울이 율법에 대한 未練이 남았기 때 문이 아니었다. 또 유대사 람을 두려왔기 때문에도 아니었다. 단지 그를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 고 그리스도의 은혜안에 있 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근 본적인 신앙이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 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 을 따라가는 행동을 감히 했던 까닭이다. 21절 「율법에 있어 사는 사 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도 율법 없이 사는 사람 들처럼 했을 것이다. 그것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 기 위하여 그러한 것입니 다. 사실 나는 하나님의 율 법 밖에서 사는 사람이아 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20절에는 「율법에 매여 사 는」이라고 하는데 바울자 신은 「그리스도의 율법 안 에 사는」이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의 계명이다. 바울은 여기 에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과 같이 되었다고 하고 있 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 에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 과 같이 되었음으로 복음 의 본질 곧 그리스도를 전 할 수가 있었다. 유대 민족주의자로서의 교 육을 받고 유대주의와 율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맘 을 먹고 있었던 바울. 그 나눌 수 있게 되는지도 모 른다. 바로 그때야말로 예 수・그리스도가 상대의 인 생의 文脈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 으로 우리를 쓰시는 순간 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음 을 섬기는 것이다.



韓国そうざい・食肉加工
食品輸出入・各製造販売
高山食品株式会社
代表取締役 元 洪 植
(福岡教会 長老)
本社 〒816 福岡市博多区東那珂3丁目9番26号
電話 (092) 461-0055代
FAX (092) 461-0090番
※おいしい김치・고추장・떡국發送いたします。

〈電々公社認定〉
構内交換機・ボタン電話
松下通信工業(株)専売代行店
(株)ナカヨ通信機特約店
東亜特殊電機(株)特約店
株式會社 高德通信工業
代表取締役 李 建 豪
(名古屋教会 長老)
〒490-11 愛知県海部郡大治町大字砂子字村東2336
電話名古屋<52>431-3156(代)

東逸通商株式會社
代表取締役社長 崔 誠 元
(東京教会 長老)
本社 東京都中央区銀座8丁目16番10号
〒104 (中銀カプセルタワービルA 601)
電話 (03) 541-2270代
FAX (03) 656-2708

李應周牧師 委任式舉行



岡崎教会 李應居牧師委任
式이 지난 五月二九日主日
午後三時부터 있었다。

臨時堂會長 黃義生牧師任
의 司會로 始作된 委任式禮
拜는 恩惠가운데서 進行되었
다. 開會祈禱에 金昌杰牧師
任의 順序에 이어 盧政一
牧師任의 聖書奉誦(哥8·
24·25)을 한후 名古屋教會
와 岡崎教會 連合으로 聖
歌隊가 讚揚을 하였다. 그
리고 中部地方會長 金桂星

岡崎教会에서 盛大히

牧師任으로부터 希望의 牧
會」란 主題로 說敎의 말씀
이 있을후 司會者로 부터 委
任받는 牧師를 소개한후 金
桂昊地方會長이 委任받는 牧
師와 敎友들에게 贊約을 하
고 祈禱한후 委任되었을 宣
布하였다. 이어서 李聖雨牧
師任은 委任받는 牧師에게
朴憲燮長老任은 敎友들에게
勤勉이 있었으며 또한 敎
團 岡崎敎會 竹內牧師任과
金光洙長老任으로부터 祝
辭가 있었다. 그리고 岡崎
敎會에서 記念品과 꽃다발
의 贈呈이 있을후 委任받
은 李應周牧師에 의한 답사
가 있었다. 李應周牧師는 答
め, 또한 앞으로 岡崎敎
會를 中心으로 宣敎活動을
할때도 前보다 더 뜨거운
祈禱와 支援을 부탁드리니
다—하고 感謝의 뜻을 표
했다.

마지막에 李應周牧師의 祝
詞로 委任式的 順序를 마
쳤다.

札幌 金健牧師委任式

점=二世牧師에 큰期待

金健牧師의 委任式이 七月二十日(水) 午前十一時、札幌教會에서 盛大히 挙行 司會、宋正漢長老(東京教會 臨時堂會長 姜栄一牧師의 됐다.



行했다

臨時堂會長 金得三牧師(西宮教會)의 司會로 進行,
西部地方會副會長 洪永其牧
師(武庫川教會)의 「忠誠된
牧者」(분문 요한啓示錄二·
八~一二)란 說教가 있었
다.

하여 高致煥牧師가 祝辭을
다. 이어 委任받은 文泰善牧
師의 答辭, 許天五執事의 祝
電披露, 教會로부터의 記念
品, 꽃다발 贈呈, 方渠委員長
老의 광고가 있을후 文泰

總會長 楊炯春牧師(京都教會)의 司式으로 總會加入式이 있었다. 司會者가委任받은 文泰善牧師를 紹介한후 地方會長 金炯卓牧師(神戶東部教會)의 司式으로 委任式이 執行되었다.

文泰善牧師의 總會加入式
과 川西教會 委任式이 六
月十二日(日) 午後三時三十
分, 川西教會에서 엄숙히挙

鄭燦俊牧師(姫路伝道所)	中文教會、濟光教會를 牧會
가 牧師에게 辛鐘國牧師(神	濟州老會長、同維持財團理事
戶教會)가 敎友에게 勸勉	長、濟州道史 執筆委員等을
이 있었다. 이어 總會를 代	歷任했다.



의 祈禱, 申鉉錫牧師 船橋牧
會)의 祝歌, 李仁夏牧師(川
崎教會)의 (매나 尊敬받는
敎職者) 모듬은 積錢五·十七
·十八)란 題目의 說敎가
있었다.

地方會長 尹宗銀敎師(橫
浜教會)의 司式으로 委任



金 健 牧 師

婦人会西南連合会
金貞女会長을選出

婦人会西南地方連合会第三
十四回定期大会が 五月十日
(火)午前十時三十分 下関教
会에서 開催됐다。
定期大会에서 選出된 任
員은 다음과 같다。

副書記	書記	副會長	會長
姜信愛(福岡)	安芸卿(下関)	辛聖連(福岡)	金貞女(小倉)

諸職訓練の手引書 ②6

諸職と献金 III

尹 宗 銀 牧師（横浜教会）

あなたにさげます」(創世記二八章二〇・二二節)と。レビ記には「地の十分の一は地の産物であれ、木の實であれ、すべて主のものであって、主に聖なる物である」(レビ記二七章三〇節)とある。聖なる十一條には三つの基本精神がある。一、全財産・全産物はその物であるがゆえに、その十分の一は神の物である。

二、神にささげる標準は土地の産物と家畜の十分の一をささげることである。

三、異教徒と選民との区別が十分の一のささげものにあられる。預言者マラキは十分の一を捧げないことは神の物を盗むことであり、横領する。

マラキは「あなたがたは十分の一の全部をわたしの倉に携えてきなさい。これをもってわたしを試み、わたしが天の窓を開いてあふる恵みをあなたがたに注ぐか否かを見なさいと、万軍の主は言われる」(マラキ三章十節)。パウロは心からの献金をもっと多くのものをもたらすのであると言われたのを記憶すべきである。パウロは「こうして、あなたがたはすべてのことに豊かになって惜しみなく施し、その施しはわたしたちの手によって行われ、神に感謝するに至るのである」(コリント第二の九章十一節)と言っている。

ることであると叱つた（マラキ第三章八・九節）。

⑦新約時代の十一條
新約聖書ではパリサイ人の「全収入の十分の一を捧げています」（ルカ一八章一二節）という祈りと、イエスの十分の一に関する言及を読むことができる（マタイ二三章三節、ルカ十一章四節）。

初代教会では第一回の教会

十一條献金を捧げることには捧げる人が神を敬うしるしである。そしてイスラエルの民には十分の一がレビ人と祭司たちを後援する物資である。祭司たちから指導されるのでそれに対する感謝のしるしとして十分の一を捧げるのである。それはそのような特定な人のために捧げると同時に全人類のために捧げることにな

邦人の割礼問題が解決され、土曜日安息日を日曜日主日に変更されたが、十一条献金は律法主義だと言って変更・廃止もなかったのである。パウロも直接的には十一條献金に対しては何も言っていないが、献金は「心をこめて用意してほしい」と言いながら「しい

④十一條献金の祝福

十一條献金は神の恵みに對する感謝のあまり喜んで捧げるので、十一條献金を捧げれば靈的にも物質的にも祝福されるのである。しかし、功利主義概念をもつて捧げるとすれば、それは無意味となつてしまふ。

めたとおりですべてである。神は喜んで施す人を愛して下さるのである。(コリント第二の九章七節)と言っておられる。

③十一条献金の目的

旧約聖書では捧げものは祝壇の上に置いて焼いた。そして十分の一の一部は喜びの会で会食するのである。この捧げものは神に贈る人自身の必要ものを満たして下さる。真心をもつて十一條を捧げる人はまちがいなく祝福されるといふ信仰の文がマラキ書にある(列王紀上三章十一、十四節)。

神は十分の一を捧げる人に信仰・知恵・道徳などの霊的恵みを豊かに与える。霊的祝福とは何か。第一にあらゆる恵みを豊かにする。献金を勧めたパウロは「神は；あらゆる恵みを豊かに与える」「コリント第二の九章八節」と言った。第二にすべての事を常に満たせるのである。ソロモンが知恵を求めたゆえに、神は彼に求めないもの、すなわち富と譽をも彼に豊かに与えた(列王紀上三章十一、十四節)。

不動產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③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光 洙
(名古屋教会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話 052(682)1177(代)

自 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話 052(711)4398

博宝工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沈 栄 吉
(福岡教会 長老)

〒812 福岡市博多区大博町13-22
TEL 092-271-2126 番

(KCPチェン・エアポートイワイ)

聖和商事

タイ王室に果実納品(14年間継続中)
大阪国際航空全機内食果実納品

代表者 禹 永 吉
(武庫川教会長老)
大阪府池田市空港1-7-15(大阪国際空港前)
TEL (店) 06-843-0816
TEL (自) 06-855-3865

